

국가전략연구위원회 이슈브리핑 16호 (발간일: 2023.12.13.)

북한의 안보전략과 사이버안보¹⁾

황지환 (서울시립대학교)

I. 북한의 대외 안보전략

북한에서 사이버 능력은 핵, 미사일과 함께 인민군의 3대 수단으로 간주되며, 사이버 전력은 핵/미사일, 게릴라전과 함께 북한의 3대 비대칭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과거 김정 은은 “사이버전이 핵, 미사일과 함께 인민군대의 무자비한 타격능력을 담보하는 만능의 보 검”이라고 언급하며 사이버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알려져 있다.²⁾ 북한이 다양한 사이버 공격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은 현대 세계 안보환경에서 사이버전이 점점 더 중요해 짐을 인 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반도에서 재래식 첨단 무기를 비교할 때 북한은 한미 연합 능력에 크게 뒤쳐져 있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사이버전 능력은 북한에게 더욱 중요하다. 북 한은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과 더불어 사이버 전력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사이버 전략은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보다는 전반적인 대외 안보전략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핵심인 대미전략 및 핵전략과 연결시키면서 이해 하는 것이 필요하다.

1. 북한의 대미전략 방향성

북한은 이미 2019년 하노이회담 실패 이후 미국에 대한 ‘정면돌파전’을 선언하며 공세

1) 이 글은 2023년 12월 7일 제6차 사이버 국가전략 포럼에서 발표된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2) 조선일보 2013년 11월 5일.

적인 대외전략을 추진하고 장기적인 버티기를 시작했다. 특히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후 북한 핵문제는 더욱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데, 핵무력 법제화가 이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비핵화가 완료되면 되돌릴 수 없으며 이후에 주변 강대국의 위협을 억지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강화하게 되었다. 북한은 미국 등 주변국들의 안전보장을 통해 평화를 보장받는 정책이 비현실적이고 순진한 사고라고 생각하고 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위기에 관심을 집중하는 동안 북한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것이며,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 북한이 일련의 공세적인 대외정책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사이버안보에 대한 북한의 관심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과거 소니픽처스 해킹처럼 국내외 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시도될 가능성이 있다.

2. 핵무력정책법 공포와 한반도 핵위험 고도화 가능성

김정은은 8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이미 시작한 핵무력 건설을 중단없이 강행추진할 것을 요구했으며, “핵기술을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핵무기의 소형경량화, 전술무기화를 보다 발전시켜 현대전에서 작전임무의 목적과 타격대상에 따라 각이한 수단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들을 개발하고 초대형 핵탄두 생산도 지속적으로 밀고 나감으로써” 군사적 위협을 억지하고 통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³⁾ 또한, 김정은은 “국방과학부문에서 세계 병기분야에서 개념조차 없던 초강력 다련발 공격무기인 초대형방사포를 개발 완성하고 상용탄두 위력이 세계를 압도하는 신형전술 로켓과 중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비롯한 첨단 핵전술 무기들도 련이어 개발함으로써 믿음직한 군사기술적 강세를 틀어쥐었다”고 언급했는데, 전술핵무기에 대한 언급은 한반도에서의 핵위험을 구체화하는 모습으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2022년 9월 북한의 핵무력정책법 입법화와 한반도에서 새로운 핵교리 선포는 정책의 큰 변화로 인식된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핵무력정책법을 입법화하여 핵무기 사용조건을 구체화 하였는데, 북한은 “국가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체계가 적대세력의 공격으로 위협에 처하는 경우 사전에 결정된 작전방안에 따라 도발원점과 지휘부를 비롯한 적대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핵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에 단행된다”고 규정하며 5가지 상황을 상정하였다.⁴⁾ 구체적으로 1)-3)은 전쟁임박시의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을 언급한 것이며, 4)는 전시 핵사용을 언급했으며, 5)는 보다 포괄적인 위기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핵무력정책법은 이전까지 언급한 대미 핵억지력으로서의 전략핵무기와는 달리 한반도에서 핵 선제사용을 언급한 것으로서 핵정책이 큰 변화를 보인 것으로 이해된다.

3)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을 새 승리로 인도하는 위대한 투쟁강령 조선로동당 제 8차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보고에 대하여,” 로동신문 2021년 1월 9일.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 로동신문 2022년 9월 9일.

이에 따라 최근 북한이 핵사용 교리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되어 왔으며 핵무력정책법이 이를 구체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지금까지 보여 온 핵교리는 기존 미소 냉전시기의 상호확증파괴(MAD) 개념에 기반한 '확증보복(assured retaliation)' 전략이었다.⁵⁾ 이는 한미의 군사적 공격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복을 위해 핵을 사용할 것이라고 표명하여 억지하는 전략이다. '확증보복' 전략은 군사적 공격 가능성이 임박한 경우 선제타격을 암시하지만, 초점은 억지에 있다. 북한은 북미 핵균형을 바탕으로 대미 핵억지력을 추구하고, 미국의 군사적 공격에 핵무기 보복으로 대응하는 처벌적 억지(deterrence by punishment)를 주로 상정하고 있었다. 북한은 선제타격 개념을 부정하지는 않았으나, 핵 선제사용(nuclear first-use)보다는 한미의 공격이 임박했을 때 타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하지만, 북한의 핵교리가 보다 공격적인 것으로 변했다면 그것은 '비대칭확전(asymmetric escalation)' 전략일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핵무기의 선제사용을 포함한 위협을 통해 상대국의 공격 가능성을 억지하는 전략이다. '비대칭확전' 전략 역시 억지를 언급하지만 선제사용(first use)에 더 초점이 가 있어 보다 위험한 전략이라고 해석된다. 북한의 전략이 '비대칭확전' 전략으로 옮겨갈 경우 한반도에서 상당한 위기 고조 가능성이 있다. 이번 핵무력정책법의 조건 중 5번째 내용은 북한의 핵전략이 '비대칭 확전' 전략으로 옮겨갈 가능성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이 경우 북한이 향후 상당히 공세적인 핵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핵전략 변화는 사이버안보 전략에도 상당한 함의를 가진다. 북한의 핵교리가 '비대칭확전' 전략으로 변화하여 핵무기의 선제사용을 고려할 경우, 그 과정에서 사이버전은 사전적인 과정으로 중요성을 더할 것이기 때문이다.

3. 신냉전 인식과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

북한의 김정은은 신냉전 세계질서를 인식하기 시작하며, 최근 대미전략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북중러 연대를 강조해 왔다. 김정은은 2021년 9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국제관계구도가 《신냉전》구도로 변화되면서 한층 복잡다단해진 것이 현 국제정세변화의 주요특징"이라고 분석한 적이 있다.⁶⁾ 김정은은 이를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강권과 전횡이며 미국의 일방적이며 불공정한 편가르기식 대외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비판적인 인식을 보였다. 김정은은 2022년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도 한반도 주변 국제질서의 변화를 강조한바 있는데, 그는 "현 국제정세는 정의와 부정의, 진보와 반동사이의 모순, 특히 조선반도를 둘러싼 세력구도가 명백해지고 미국이 제창하는 일극세계로부터 다극세계로

⁵⁾ 이는 비핀 나랑(Vipin Narang) 교수의 분류에 따른 설명이다. Vipin Narang, *Nuclear Strategy in the Modern Era: Regional Powers and International Conflic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4).

⁶⁾ 로동신문, 2021년 9월 30일.

의 전환이 눈에 띄이게 가속화되고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⁷⁾ 물론 이러한 대결구도가 1990년대 초반 이후 지속되어 온 탈냉전의 미국 단극 시기와 비교하면 북한의 전략적 환경을 상대적으로 개선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미소 냉전으로 인해 1980년대 말까지 한반도에서 세력균형을 유지하다가, 1990년대 이후 냉전의 종식으로 미국 단극 시대에서 체제위기를 경험한 바 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새로운 냉전구도는 북한의 대외환경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는 한국 입장에서 대북정책이나 남북관계를 운용하기에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질서에 대한 김정은의 새로운 인식은 미중 전략경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달라진 국제정세를 반영한다. 그는 변화된 세계질서가 한반도 안보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이는 북한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개연성이 높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미국 주도의 단극체제가 다극체제로 전환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권력구조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북한은 변화된 국제질서에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정은은 외교 분야에서 현재 미국의 대북정책과 국내정치, 변화하는 글로벌 세력균형을 연구하고 전략적인 대미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전술적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간 북한은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을 적극 지원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히 옹호하며 우크라이나 사태의 근본 원인이 미국과 서방의 패권 전략에 있다고 주장해왔다.

김정은이 예상하는 대로 국제관계에 냉전 질서가 다시 도래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신냉전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해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불법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는 2017년까지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대북 제재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과는 상반된 행보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강력한 제재가 오히려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이미 시행 중인 제재조치 해제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 러시아, 중국은 지금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군사 도발과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놓고 논쟁을 벌여왔으며, 이러한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의 도발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 한미동맹과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는 입장을 반복하며 대립각을 세워왔다. 이러한 분열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 실제 행동을 취하는 것을 막는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냉전 질서의 형성은 사이버안보 분야에서도 북한이 중국 및 러시아와의 협력을 용이하게 하여 대미 견제구도 형성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 북한은 국내 인프라의 취약성 때문에 사이버 안보전략 부분에서도 중국 및 러시아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신냉전 질서 형성은 향후 북한의 사이버 안보전략 공간을 확대

⁷⁾ 로동신문, 2022년 9월 8일.

시키고 활동을 활성화할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II. 안보전략의 관점에서 본 북한의 사이버 안보

남북관계가 불안정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사이버 공간이라는 비전통적인 영역에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커다란 위협요인을 제공해 주고 있다. 대외전략적인 관점에서 북한의 사이버 전략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사이버 안보의 속성을 통해 북한이 추구하는 사이버 대외전략과 안보전략을 대략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⁸⁾

1. 비대칭 전략으로서의 사이버 안보전략

우선, 북한이 사이버 안보 전략에 초점을 두는 이유는 사이버 공간의 속성상 보복이나 위기고조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도 한국의 안보 취약성을 공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그동안 한미의 재래식 전력에 대응하여 군사적 균형을 맞추어 나가는데 커다란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냉전이 종식된 1990년대 이후 이러한 군사적 열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핵과 미사일 능력에 초점을 두어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이버 능력은 김정일의 언급대로 “핵, 미사일과 함께 인민군대의 무자비한 타격능력을 담보하는 만능의 보검”이 될 수 있다.

북한의 군사전략은 기존의 불리한 재래식 전력을 상쇄하기 위한 비대칭적(asymmetric), 비정규적(irregular) 전략에 강조점을 두어 왔다. 이러한 군사전략의 관점에서 보면, 사이버 공간은 북한의 안보전략 관점에서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다. 사이버 공간은 그 범위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안보전략과는 달리 상당히 변화무쌍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비대칭 전략의 공간이기 때문이다.⁹⁾ 또한 사이버 공간은 고도의 익명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전장의 분쟁과는 달리 비대칭적인 대응전략이 용이한 공간이다. 실제 전장에서 물리적으로 싸우지 않고 존재를 숨기면서 은밀하게 싸울 수 있다는 점은 새로운 군사 전략을 가능하게 해 준다. 전통적인 공간의 안보전략과는 크게 차별화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북한이 평시에 위기를 고조시키지 않고 한반도의 안정을 뒤흔드는 저강도 분쟁을 야기하는데 사이버전은 적절한 정책이 될 수 있다.¹⁰⁾ 기존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더하여 한반도에서 전쟁상태의 위기를 야기하지 않고도 비대칭적 안보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등장한 것이다. 특히 최근 북한의 핵교리가 변화하고 신냉전 상황 속에서 중

8) 북한 사이버 안보의 환경과 전략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북한의 사이버 안보 전략과 한반도: 비대칭적, 비전통적 갈등의 확산,” 『동서연구』 제29권 1호 (2017).

9) 민병원, “사이버역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안보와 국제정치 차원의 함의” 『국방연구』 제58권 3호 (2015).

10) Jenny Jun, Scott Lafoy, Ethan Sohn, “North Korea’s Cyber Operations: Strategy and Responses,” A Report of the CSIS Korea Chair, Washington, DC.: CSIS (2015), pp. 11-17.

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가 강화되면서 비대칭전략으로서 사이버 전략을 추진할 환경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2. 저비용, 저위험의 사이버 안보전략

한국의 인터넷 산업이 크게 발전하고 군사적으로도 사이버 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사이버 전략을 저비용(low-cost), 저위험(low-risk)의 전략으로 생각하고 있다. 한미에 대한 재래식 공격이 군사적 비용이나 위험성의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이 되는 반면, 한국과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비교적 효과적인 공격수단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우선, 북한의 국내 사이버 환경은 상대방의 공격에 활용되도록 연결된 시스템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방어에 상당히 유리하다. 사이버 공격의 진원지가 북한이라고 밝혀지더라도 북한에 대한 사이버 보복을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한미에 대해서 비교적 위험부담이 적다고 평가된다. 북한은 한미를 사이버 공격하기는 쉽지만, 한미는 북한에 대한 사이버 억지, 공격 및 방어가 제한되기 때문이다.¹¹⁾

다른 한편, 사이버 영역의 속성상 공격의 행위자와 공격 지역을 찾아내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공격 행위자가 반드시 국가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만약 북한이 한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더라도 공격의 주체를 밝히기 어렵기 때문에 행위의 주체가 북한이라는 점을 밝히기는 쉽지 않다. 공격 행위가 밝혀지더라도 주체가 국가가 아닌 비국가행위자의 행동이라 주장할 여지가 많다. 전 세계에 수많은 해커 그룹들이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비교적 낮은 위험부담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다.

사이버 공격은 또한 과거의 전통적인 전쟁과 비교해 볼 때 위기 인식이 적기 때문에 저위험의 안보전략이다. 실제 냉전시대의 핵공격 위협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사이버 공격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보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다. 공격을 당하는 국가의 입장에서 사이버 공격을 본격적인 위기나 위협으로 부각시키기 쉽지 않기 때문에 사이버 공격은 비교적 저위험의 전략으로 인식될 수 있다. 컴퓨터 네트워크 산업이 발전한 한국의 경우에도 사이버 분쟁은 일상화된 이슈이기 때문에 북한은 그리 큰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도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사이버 공격은 본격적인 군사적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비교적 군사적 위험성이 낮은 전략이라고 평가된다.

3. 기존 북한 군사전략과의 조화

사이버 전략은 북한의 기존 군사전략과 조화되는 측면이 많다. 사이버 전략은 전술한

¹¹⁾ Jun, Lafoy, and Sohn 2015, pp. 17-25.

바와 같이 속성상 비대칭, 비정규적 전략이기 때문에 기존에 북한이 한반도에서 추구해 온 군사전략과 호응하는 측면이 강하다. 북한이 전시에 추구하는 속전속결의 군사전략은 사이버 전략의 신속성과 잘 결합될 수 있어 기존 군사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많은 군사 전략가들은 북한의 사이버 안보전략이 한미의 C4ISR(command, Control, Communications, Computers,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¹²⁾ 이는 실제 전쟁이 벌어질 경우에 기존의 군사전략에 더하여 한미의 연합작전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보완적인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이버 안보전략은 기존 북한의 평시 안보전략과 조화되는 측면이 크다. 북한은 강력한 한미동맹을 상대로 1950년의 한국전쟁과 같은 재래식 전쟁을 일으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저강도 분쟁이나 평시 선전전 형태의 충돌에서 사이버 안보전략은 매우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이버 전략은 기존의 방식에 더하여 새로운 선전전의 공간이나 위협수단으로 북한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III. 맺음말

북한의 사이버 안보전략은 독립적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대외 안보전략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대응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대외정책은 어느 한 분야에서 독립적으로 진행되기 보다는 여러 분야가 서로 결합된 측면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이 기존에 전개해 오고 있던 비대칭적, 비정규적 군사전략이나, 대남 정책 등과 연계된 북한의 사이버 안보전략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물론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사이버 진주만 공습'과 같은 인식은 북한의 능력과 공격수준을 과대평가할 위험성도 있으므로 군사적인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 북한의 사이버전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비전통적인 방식의 행위자와 영역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행위자들은 비대칭적이고, 비전통적인 방식을 통해 국가성을 숨기고 비국가 행위자의 형태를 띠고 있다. 북한의 경우에도 대외적으로는 국가 자체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익명성과 비국가성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 공간은 국가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 크게 발전해 왔기 때문에 정부 부문뿐 아니라 민간영역, 특히 국제사회의 국제기구들과 국내외 NGO 등 비국가 행위자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대응과정에서도 정부주도의 노력과 더불어 국제기구와 NGO등 다양한 행위자들의 활동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최근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는 사이버 안보전략의 관점에서도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는 그동안 절대적으로 열세였던 군사 정보

¹²⁾ Jun, Lafoy, and Sohn 2015, pp. 26-34.

(intelligence) 영역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냉전 종식이 후 핵무기 개발을 통해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을 추구했듯, 군사정찰위성을 통해 한반도에서 '정보의 균형(balance of intelligence)'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군사분야에서 정보의 문제는 상당부분 사이버 공간에서 진행될 수 있어 향후 군사정보 관련 북한의 사이버 전략이 보다 강화될 것이다. 더구나 지난 9월 있었던 북러정상회담에서 러시아가 북한의 위성 발사를 돕겠다고 시사한 바 있어 정찰위성 발사는 북러 협력 관계의 어젠다로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북러간 사이버 안보 협력도 보다 확대될 것인지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하마스-이스라엘 전쟁 이후 북한 비핵화 협상과 북미관계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어려워 보인다. 북미간 북한 비핵화 협상은 2020년 이후 전혀 진전이 없었다. 북한은 '정면돌파전'을 주장하며 장기적인 버티기에 들어갔고, 바이든 행정부는 산적인 국내외 이슈에 사실상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위기에 관심을 집중하는 동안 북한은 현 상황을 타개하고 한반도에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일련의 공세적인 정책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군사적 위기 고조 가능성이 낮은 사이버 안보영역은 북한에게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다. 북한은 현재의 글로벌 위기를 자신의 입장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로 활용할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북한의 대 중국 및 러시아 접근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사이버안보학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